



사회적 구상의 의의

글 · 김용진 대표이사 대웅전기산업(주)

사회(社會)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으로 쓰이는 말이나, 요즈음에 와서는 대개 국민적 규모의 전체 사회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가와 대립적인 개념으로서의 시민사회를 가리키기도 하며, 때로는 막연히 세상(世上) 또는 몇몇 집단이 구성하는 자족적(自足的) 결합이 강한 연대(連帶)를 뜻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사회과학의 추상적 개념으로서는 인간 결합생활인 공동일반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촌민이 사일(社日)에 모이던 모임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사회에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아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발전단계의 차이로 보는 견해와 유형적인 차이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발전단계적인 견해는 근대 사회과학의 중심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사회구성의 단계적 발전을 이끈다는 소위 사적 유물론 따위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면 가족·마을·조합·교회·계급·국가·정당·회사 등은 그 주요한 형태로서, 공

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조직화된 집단생활의 총칭을 사회라고 정의한다면, 사회관계(社會關係)는 어떠한가?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접촉이나 교섭의 양식 또는 그 바람직한 양태(樣態)는 무엇인가? 사회관계는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각 성원 상호간에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접촉, 교섭, 상호간 영향관계가 인정될 때에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중심과제로 연구한 사람들은 지멜, 피칸트, 비제와 같은 이른바 독일의 형식 사회학자였다. 특히 비제는 모든 사회관계가 결합과 분리라는 2개의 주된 요소가 끊임없이 연쇄(連鎖)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확대됨에 따라 그 구조가 집중적인 상태에서 분산적 상태로 또한 동질적인 것으로부터 이질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전화되어 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속칭하여 사회적 분화(社會的分化)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통합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활환경속에서 구성원의 개성도

따라서 발전하게 된다고 분석되고 있다.

지멜은 이와 같은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사회적 분화와 일컬었는데, 뒤르켁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것을 사회적 분업으로 보았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켁(Emile Durkheim : 1858~1917)은 그의 유명한 주저(主著) 「사회분업론(社會分業論)」에서 사회적 분업은 인간의 상호의존관계와 더 나아가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기계적 연대로부터 탈피하여 유기적 연대에 굳건히 기반을 둔 사회로의 이행(移行)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말하기를 인간발달이 보편적이고 자생적(自生的)인 성숙과정이 결코 아니고, 사회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화의 유기적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유아(乳兒)는 다른 동물에 비하여 미성숙한 상태로 탄생하지만 가소성(可塑性 : plasticity)이 뛰어나 잠재적으로는 커다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성장과 더불어 자신이 소속된 사회속에서 기대되고 또한 규준이 되는 행동양식·지식·가치·동기를 터득해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모와의 동일시·모방·상벌에 의한 학습 및 조건부여 등이 작용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단연코 실현하여야 할 정의가 있다. 이를하여 사회정의(社會正義)가 바로 그것인데, 이는 곧 사회의 전(全)

구성원에 대하여 실현되어야 할 바로 정의인 것이다. 사회정의야 말로 인간의 평등성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서는 실질적인 평등인 경우가 많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이 그 구체적 내용인데, 계급·성별·인종 따위에 의한 모든 지배나 차별 따위는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된다.

한편 현상(現象)의 어떠한 변경도, 기득권이나 기대권을 빼앗는 것이 되므로 사회정의에 위배된다는 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한편 다같이 미래사회를 구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구상력(社會的構想力)은 새로운 현실의 기초위에서 창조적이고 동시에 인간적인 미래사회를 구상하자는 것이다.

요즈음 미래연구에서 사회적 구상력이란 말이 자주 쓰이는데,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진보에 비하여 사회의 바람직한 자세 그 자체를 구상하는 부단한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기술이 가져다 주는 것을 단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거나 혹은 낡은 고정관념으로 미래사회를 논하고 있는 한 우리들은 미래를 창조하거나 제어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구상력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될 것이다.